

일본성공회 주교원 메시지
“전후 80년”을 맞이하여

"너희는 마음에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마르코의 복음서 9:50)

< 들어가며 >

일본성공회에 속한 모든 분들께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2025 년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종결된 지 80 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본의 패전으로 전쟁은 끝났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 2,000 만 명으로 추산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람들과 일본 국내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80 년이 지났지만 전쟁의 희생과 피해로 인한 여러 가지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침략한 국가들과의 화해와 평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반성과 아픔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후 80 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이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그 아픔과 고통,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세계 평화를 향한 일본성공회의 바람직한 모습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일본성공회의 전쟁 책임>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1995 년에 열린 '일본성공회 선교협의회'입니다. '일본성공회의 선교 - 역사에 대한 책임과 21 세기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협의회에서 일본성공회의 전쟁 책임을 인정하고, 그 반성 위에 21 세기를 향해 역사적으로 지배와 전쟁의 피해를 입어 지금도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 -재일 조선인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사람들, 오키나와 사람들, 아이누 사람들, 피차별부락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여성들 등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선교의 중심 과제로 삼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듬해인 1996 년 개최된 일본성공회 제 49 회 정기총회에서는 '일본성공회의 전쟁책임에 관한 선언을 결의하는 건'이 채택되어 전 교회가 일본성공회의 전쟁 책임을 공유하고, 일본이 침략한 국가의 교회에 일본성공회로서의 사죄의 뜻을 전하는 한편, 각 교구와 교회에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과 복음의 이해를 묻고 사실에 대한 인식과 복음적 이해를 재조명하고 심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각 성공회와의 협력 관계 - 특히 대한성공회, 필리핀성공회와의 협력 관계 - 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오키나와의 평화와 인권 문제에 대한 관여를 추진해 왔습니다.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화해, 그리고 오키나와의 평화정착은 앞으로도 일본성공회의 선교활동의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그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2023 년 일본성공회 선교협의회 >

2023 년 11 월 10 일부터 13 일까지, 야마나시현 키요사토의 세이센료에 모든 교구 주교를 위시하여 각 교구 대표, 관구의 모든 위원회 등 신도와 교역자 132 명이 모인 가운데 「생명, 한없이 존엄한

것, ~이웃이 되기 위하여~」라는 주제로 ‘2023 년 일본성공회 선교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선교협의회는 ‘2012 년 일본성공회 선교협의회’로부터 10 년후에 <선교·목회>의 열매를 가지고 모아자는 약속을 지키는 취지로 개최된 것으로, ‘2024 년 2 월 2 일 2023 년 일본성공회 선교협의회로부터의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나아가자 ~ 생명을 소중히, 이웃이 되기 위하여~ 1.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자, 2.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 3. 세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라는 성명을 통해 교구, 교회, 신도, 교역자가 ‘이웃이 되기 위해’, 여기서부터 귀를 기울이는 구체적인 실천을 소중히 여기며 걸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앞으로의 일본성공회의 모습 >

2022 년 2 월 24 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 년이 지나고, 2023 년 10 월 7 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지구를 공습한 지 1 년 반,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6 만 명, 5 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2021 년 2 월 1 일 군사 쿠데타가 발발해 민주화 과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미얀마 대지진 피해자 구호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핵우산 아래, 특히 오키나와 미군기지 고정화, 헤노코 기지 건설 강행, 대만 유사시를 고의로 선전하고, 남방 제도의 자위대 기지 건설을 가속화하고, 전쟁 포기를 명시한 헌법 9 조 개정을 추진하는 등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키나와, 한국, 중국과의 관계 악화 등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일본피폭자단체협의회)는 2024 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유일한 피폭국인 일본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지향해야 합니다. 핵무기로 세계를 멸망시켜서는 안됩니다. 일본성공회는 '핵과 생명은 공존할 수 없다'는 이념으로 핵발전소가 없는 세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후 80 년을 맞이한 우리는 지금까지의 역사와 예수님의 복음으로부터 배우고, 생명을 빛나게 하는 사역, 장벽을 허물고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하는 평화의 도구로 나아가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평화의 표징, 화해의 그릇으로 >

주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우리들 안에 있게 하여주십시오.” (요한의 복음서 17:21)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명령하시며 성령을 주시고 화해의 사역을 위해 파견하셨습니다(요한의 복음서 20:21 이하).

우리는 일본 사회 속에서 작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생명을 존중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하고 섬기며 걸어갈 때, 우리는 각 지역에서 '평화의 표징'이 될 수 있습니다.

전후 80 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평화의 표징”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일본성공회의 전쟁책임에 관한 선언'과 '2023 년 일본성공회 선교협의회로부터의 성명'에 담긴 내용을 정성껏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보여주신 화해와 평화를 알려 나가겠습니다.

2025 년 부활절
일본성공회 주교원